제1581호 연중 제15주일 | 2020. 7. 12

절두산순교성지
Jeoldusan martyrs' shrine

주임신부 | 원종현(야고보)
수 녀 원 | 도레지나 · 김안드레아클라라
(04085)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6 (합정동)
사 무 실 02-3142-4434, 2126-2200
순례예약 02-3142-4504, 4505
부활의집 02-3142-4827 Fax 02-336-6305
www.jeoldusan.or.kr

◈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대수선 안내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內 전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가 6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4개월 간 진행 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성지에서는 순례자분들의 안전과 미사전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순례자분들께서도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로 인해 순례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성당화장실은 폐쇄하오니 교육관과 야외지하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순교자 현양미사

매주 화요일 미사는 순교자 현양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첫 화요일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들을 위한 현양미사로 봉헌되고, 2~4주 화요일은 특별히 절두산에서 순교하신 '하느님의 종 13위'의 시복을 기원하는 현양미사로 봉헌하오니 순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14일(화)	하느님의 종 김한여(베드로)
	21일(화)	하느님의 종 김진구(안드레아)
	28일(화)	하느님의 종 김큰아기(마리아)

미사 및 전례 안내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10시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3시 / 주일 오전 10시 • 오후3시	
절두산순교자현양미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한국순교자현양미사	첫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성지후원회원미사 성모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8월 1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7월 중단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7월 중단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7월 중단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7월 중단
상설고해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잠정 중단)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439	512 / 216	171 / 197	437

◈ 절두산순교성지 미사 참례 안내

절두산순교성지 성당에서는 10시와 3시에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월요일은 3시미사 없음)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미사 당 참례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사 참례자 접수는 매 미사 한 시간 전부터 성당 언덕 입구에서 받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대비해서 미사 참례자는 성명, 전화번호, 소속본당, 주소 등 참석 기록을 남깁니다.
미사 40분 전부터 발열체크 후 성당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사 후 방역을 위해 바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6월 결산보고

수입	계정과목	지출
5,817,800	주일헌금	
14,209,000	기타헌금	
434,500	목적헌금	
34,911,000	후 원 금	
27,500,108	기타수입	
4,000,000	성지발전헌금,관리비	
	유물및고서	34,650,000
	선 교 비	6,357,590
	단체보조비	1,454,000
	사제성무활동비	3,480,000
	수녀성무활동비	1,810,000
	자선찬조비	201,680,000
	행 사 비	1,089,800
	인 건 비	44,741,370
	여비교통비,회의비	50,060
	운 영 비	29,292,810
	세금과공과	854,130
	복리후생비	6,227,090
	조경기타시설비	231,555,000
	부활의집 운영비	18,510,860
86,872,408	소 계	581,752,710
494,880,302	수지차액	
581,752,710	합 계	581,752,710

◈ 우리들의 정성 (6/29 ~ 7/5)

주일헌금 (연중 제14주일)	1,464,000
고통받는 교회돕기 헌금	363,000
순례자봉헌함	30,000
감사헌금	110,000
김마르첼리노 30,000 익명 8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